

금속 활자를 체험할 수 있는

청주고인쇄박물관

설명

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'직지'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처음 인쇄되었다. 독일의 금속활자보다 78년이나 앞선 '직지'는 현재 남아있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.

청주고인쇄박물관은 이 '직지'를 인쇄한 청주 흥덕사지에 1992년에 개관한 고인쇄 전문박물관이다. 이 박물관에는 직지와 함께 우리의 옛 인쇄 문화에 대한 여러 자료가 전시되어있다. 그리고 관람객이 직접 목판인쇄와 금속활자인쇄를 체험할 수 있어 인쇄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.

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
(지번 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운천동 866)

소개

상시 체험

- 운영 시간: 10:30 / 13:30 / 15:00 / 16:30(1일 4회, 예약제)
 - 운영 요일: 화요일 ~ 일요일 및 공휴일(월요일 휴관)
 - 체험 종류: 납활자인쇄(한지) / 목판인쇄(시전지) 중 선택 가능
 - 체험 요금: 무료
 - 예약 문의: 043-201-4288
 - 단체: 최대 25명,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문의
 - 예약은 최소 1일 전까지
 - 기타: 별도 예약없이 전시관 1층에서 목판인쇄(시전지) 체험 가능
- 특별 체험: 홈페이지 통해 안내

